

최대 김양식어장 만호해역 어업권 잠정 합의

해남-진도 어민들 '대법원 판결 수용' 협의확약서 최종심 전까지는 해남 어민들이 어업권 행사

전국 최대 김양식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 어업권을 놓고 벌어진 해남과 진도 어민들의 분쟁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여섯 수백척까지 동원하며 시위를 벌였던 양측이 '법원 판결을 통해 어업권 귀속 주체를 가리고, 대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는 해남 어민들이 어업권을 행사'하기로 최종 합의했기 때문이다.

1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해남과 진도 어민대표 등은 지난 9일 진도군 수협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의확약서를 작성했다.

협의확약서 작성에는 김성주 해남군수 협조장장, 박성진 해남어업인 대표와 김기영 진도군수협 조합장, 엄철용 진도어업인 대표가 참석했다. 양동일 전남도 수

산자원과 어업지도팀장, 황규용 진도군 수산자원과장, 전창우 해남군 해양수산과장이 임회했다.

협의확약서에서 각 당사자는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판결 전까지 해남 측에서 현재 사용 중인 양식어장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만일 원고(해남군)가 승소할 경우 피고(진도군)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피고가 승소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양식장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완전 철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 관련 양식장 전부를 인도하기로 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어업권과 관련해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방해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확약서를 19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조정에서 제출하며 재판 변론을 준비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종 대법 판결까지는 3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극적 합의로 매일 해상충돌이 일어나며 긴장감이 돌던 마로해역이 평화를 찾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 사이에 있는 마로해역의 양식 어장 면적은 총 1만2000ha다. 진도 수역이 80%, 해남 수역은 20%를 차지한다. 분쟁은 진도 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는 1370ha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양측 갈등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해남 어민들은 "마로해역은 지리적으로 해남과 가장 인접한 곳으로 1982년부터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 어장 3000여ha를 최초로 개발했고, 생계유지를 위해 김 양식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분쟁 종식을 위해 전남도로부터 해남 어장 면적만큼 진도 어민들이 신규 면허지(1370ha)까지 받았으면서 또다시 양식장 사용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남 어민들의 터전을 빼앗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진도 어민들은 지난 6월 7일, 10년간 해남 어민들과 조건부 사용 합의 기한이 만료됐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진도어민들이 지난해 12월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10년 연장)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진도 측은 해남 어민들에게 어장 반환 소송을 냈다. 법원의 조정을 위한 변론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주민숙원사업 점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9일 완도 보길도, 노화도를 찾아 주민 숙원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섬 발전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섬 정책 추진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세계김치축제 '온라인' 개막

다음달 2일~22일 축제 공식 홈페이지서 개최

광주 세계 김치 축제가 온라인으로 남도 전통의 김치 맛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다음달 2~22일 광주 세계 김치 축제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에서 광주 김치를 클릭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축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김장 비법 소개, 구매 등 행사를 펼친다.

지역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광주 김치 랜선 마켓', 김치를 활용한 요리법을 알리는 '이색 김치 요리 랜선 교실', 대동령상 수상자들의 비법을 전수하는 '명품 김치 랜선특강'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랜선 마켓에서는 동물성 젓갈 대신 식물성 재료로만 만드는 '비건 김치', 1인 가구를 위한 '혼밥 김치' 등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김치로토, 케랄라 초특가, 김치퀴즈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할인 이벤트는 12일 부터 축제공식 홈페이지(www.kimchifestival.kr)에서 사전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포터즈도 12일부터 23일 까지 축제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프로그램 성격상 오프라인 개최가 불가피한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 등은 14일까지 축제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아 축제기간 동안 남구 임암동 김치타운에서 경연대회를 치르게 된다.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 본선은 11월 13일, 김치 응용요리 경연대회 11월 14일 열린다.

광주시는 소비 진작,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할인행사 '20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행사를 연계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경실련, "세계김치연구소 독립 연구기관 유지해야"

식품연구원과 통합 반대

정부가 세계김치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과 통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광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세계김치연구소를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세계김치연구소는 2012년 광주시에 이전 개소한 이래 김치 기능성 유산균 발굴, 우수 김치 종균 개발, 자동화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이 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과 통합하려는 정부의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20여년간 김치 관련 연구와 전시, 생산, 판매, 체험 등 복합 기능을 하는 김치 테마복합단지를 남구 김치

타운 일원에 구축했다"며 "광주시민들은 김치산업 발전과 김치 종주 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지원과 지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그런데도 연구소 효율화를 명분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면 기구가 축소되고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돼 김치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며 "김치 종주 도시인 광주와의 연계 효과도 현격히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세계 김치연구소를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기능 안정화와 자립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전남도, 4인가구 1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위기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보유재산은 시 지역의 경우 3억5000만원, 군의 경우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9월 9일자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 의장단이 지난 8일 전남도의회에서 상견례를 하고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자"고 뜻을 모았다. <전남도의회 제공>

호주·필리핀 '언택트 시장개척' 수출상담회

전남도, 다음달 3일까지

전남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가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소재 수출기업 10개사와 호주 시드니, 필리핀 마닐라 바이어 간 언택트 시장개척단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상담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도내 수출기업은 전남도중소기업진흥원 화상수출상담소와 서울에 위치한 중소기업유통센터 화상상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외국 바이어는 현지 사무실에서 참여한다. 상담품목은 10개 기업이 생산한 김과

떡, 훈제오리 등 농수산물품을 비롯 화장품, 공산품 등이 대상이다.

외국 바이어가 직접 보고, 만지고, 맛도 보며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난 9월 제품 견본도 현지 발송했다. 또 도내 수출기업들이 호주, 필리핀 바이어의 성향과 시장 규모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최근 화상회의를 개최해 시장 진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수출상담 시 해외 현지 통역사가 샘플을 갖고 바이어 사무실을 직접 찾아 제품 설명하고 상담을 통역하는 등 상담 효율성을 높여 실제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발전·상생 위해 자주 만나자"

시·도의회 의장단 첫 간담회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는 지난 8일 전남도의회에서 시도 상생을 위한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남도의회 김한중 의장, 구부규·김성일 1, 2부 의장, 전경선 의회운영위원장, 박문욱 기획행정위원장과 광주광역시회 김용집 의장, 조석호·정순애 1, 2부 의장, 정무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일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사·도 의회는 간담회에서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사·도 행정통합을 비롯해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지역 현안에 대해

상시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전남 시·도민의 대의기관인 두 의회가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물꼬를 트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형식에 얽매지 않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 자리가 한뿌리 공동체인 전남과 광주가 더욱 상생하기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대안을 함께 수립·추진해나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